J Korean Med Assoc 2010 December; 53(12): 1050-1052
DOI: 10.5124/jkma.2010.53.12.1050
pISSN: 1975-8456 eISSN: 2093-5951
http://jkma.org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방향

고 경 석*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of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Kyung Suk Ko*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Kyung Suk Ko, E-mail: koho625@korea.kr
Received October 13, 2010 Accepted October 26, 2010

Abstract

At the end of 2009, the number of registered disabled was 2,430,000 in South Korea. Of them, 90% originated from acquired causes such as diseases or accidents. Although disabilities are everyday problems that can be met by anybody, disabilities had been a problem that people tried to conceal. However, social recognition of the disabled has been developing with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upgraded the policy on disabilities from benefaction to social security.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support a variety of welfare systems for the disabled. Specifically, jobs for the disabled are going to increase from 3,400 positions in 2010 to 10,300 in 2011. The pension system for the disabled, introduced in July 2010, will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If a personal care assistance system for the disabled is introduced beginning in October 2011, the number of supporting personnel who will visit and provide nursing services to the disabled will increase from 30,000 at present to 50,000 at the end of 2011. Besides the abov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people should participate i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recognition to the disabled. After that, social participation by the disabled will be expanded so that an integrated society based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can be realized in Korea.

Keywords: Disabilities; Welfare; Pension; Care assistant; Long term care

서 론

2012년 인천 송도에서 세계장애인대회가 개최되고 지난 9월에는 김형식 교수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당선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수준이 장애계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못하지만,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은 기대만큼 높지 않고 생각하기 조차도 싫어하는 것 같다. 물론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243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다. 이들

* Present position: Heath Insurance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eoul, Korea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장애인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경우는 5.4%에 불과하고 90%는 질환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장애에 대한 개념도 크게 바뀌어 오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장애를 부끄럼, 수치 또는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장애를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의학적인 치료와 재활훈련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려는 좀 더 진전된 재활모델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장애는 인간이 만든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결국 사회가 장애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모델이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도 시혜(charity, help those in need)에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 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을 둔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교육, 고용, 정보화, 사회적 인식개선, 편의증진 및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400개 늘어난 10,300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3,500여 개의 모든 읍면동에 장애인이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경로당에도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며, 도서관 사서 및 주차단속 지원 등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15개소 증설하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고용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18개 품목에 한정하여 5-20%를 구매하도록 한 것을 총구매액의 1%로 변경함으로써 현재보다 2배 이상 구매가 늘어나게 된다.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저소득 장애인 33만 명에게는 장애인연금을, 97천 명에게는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단가도 313천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장애등록에 필요한 검사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아동 및 그 부모를 위해서는 재활치료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각 장애부모를 둔 자녀들의 언어발달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 재활치료센터도 금년 인천에 이어 부산·대전·광주·춘천·제주 등에도 설치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혼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5천 명이 늘어난 35천 명에게 지원한다. 내년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바꾸어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5만 명으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택시·저상버스를 확대하고 시설·건물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는 시설 설치 확대와 함께 기준에 맞도록 설치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또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실시하여 설계단계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장애인 운전과 생활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면허연습장을 임차하여 전문강사가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운전교습을 실시한다. 현재 3-4개월 걸리던 대기시간이 1개월 정도로 축소가 될 것이다. 생활체육어울림캠프·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도 실시된다.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장애인 차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장애인 체험확대 등 국민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계속 된다. 통신중계기관은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조사 시에 장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 유엔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 및 인권 보호 현황을 보고하고 2012년 세계장애인대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이루어진다.

장애인등록제도를 개선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집중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에 1-3급만 장애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등급에 확대 적용된다. 이를 위해

현재 일선 병의원 의사들이 장애등급을 부여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진단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등만을 제출하고 장애등급은 다른 전문의사가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는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는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국민이 장애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차별을 해소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을 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인구의 감소, 나아가 노동력의 부족으로 국가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 되는 바, 장애인도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핵심용어: 장애; 복지; 연금; 활동지원; 장기요양

J Korean Med Assoc 2010 December; 53(12): 1050-1052